

광주서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막 올랐다

14일까지 초·중생 426명 참가
축구·배구 등 5개 종목서 열전
3년만에 개최... 꿈과 우정 키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가 3년 만에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제27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보라매체육관 등 광주지역 경기장 6곳에서 개최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는 양 국가 간 우호와 이해증진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스포츠 협력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대회는 취소됐고, 2022년에는 주 개최지 없이 국가별 부분적으로 대회를 진행,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올해는 대한체육회 공모를 통해 한국 개최지로 광주시가 선정됐다.



제27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에 참가하는 일본 오카야마현 선수단이 9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이번 교류대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생 426명이 참가한다.

한국선수단은 우산초, 방림초, 문화중, 무등중 등 광주지역 25개 초·중학교의 218명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도쿠시마현과 오카야마현의 초·중학교에서 208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교류대회는 축구·족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5

개 종목으로 펼쳐진다. 일본선수단이 입국한 9일 다음날인 10일 합동훈련, 11일 연습경기, 12일 공식경기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장소는 보라매체육관(축구), 빛고을체육관(배구), 동림다목적체육관(탁구), 광주시체육회관(배드민턴), 조선대(농구 초등부), 광주대(농구 중등부) 등이다.



제27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에 참가하는 광주 선수단이 지난 8일 광주 염주체육단지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이번 교류전에 참가하는 일본선수단 환영연은 10일 오후 6시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다.

또 일본선수단은 대회 기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광주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1일에는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치 체험을 통해

직접 만든 김치를 광주 소재 보육원 등에 기증할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교류를 통한 한·일 체육 분야의 발전과 미래의 주역들이 청소년들의 꿈과 우정을 키우는 대회가 안전하고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온 힘을 다해 카밀라 조르지(이탈리아)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알에서 열린 내셔널뱅크 오픈 64강전에서 비앙카 안드레스쿠(캐나다)를 상대로 포핸드를 구사하고 있다. 카밀라 조르지가 2-0으로 이겨 32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태권도경호학과 출전 5명 중 4명이 금메달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강현우(2학년), 박유미, 조운형, 하승민 학생(1학년)이 '2023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상했다.

8월 3일부터 6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3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는 국내외에서 30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태권도선수부는 이번 대회 4체급에 총 5명의 선수들이 출전, 체급별 토너먼트에서 수준 높은 기량을 발휘하며 선전했다.

권순재 호남대 태권도경호학과 학과장은 "여름 방학 기간동안 훈련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훈련에 더욱 매진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운용컵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호남대 태권도경호학과 학생들이 포토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재 학과장, 박유미, 하승민, 강현우, 조운형, 박호성 코치. <호남대 제공>

올해 US오픈 테니스 총상금 6500만 달러

우승 상금 39억5000만원...본선 1회전 탈락해도 1억원

올해 US오픈 테니스 대회 총상금 규모가 6500만 달러(약 857억6000만원)로 정해졌다.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9일 "올해 대회 총상금 액수를 지난해 6000만 달러

에서 500만 달러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US오픈 테니스 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미국 뉴욕의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2주간 열린다.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한국 돈으로 39억5000만 원 정도인 300만 달러다.

US오픈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2019년 390만 달러까지 올랐고,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줄었다가 다시 으뜸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단식 우승 상금은 260만 달러였다. 또 올해 US오픈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하더라도 8만1500 달러, 한국 돈 1억원을 준다.

/연합뉴스

한국 U-19 남자핸드볼, 일본 꺾고 첫 승

세계청소년선수권 34-27 승

한국 19세 이하(U-19) 남자 핸드볼대표팀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4연패 끝에 첫 승을 따냈다.

한국은 8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코프르브니차에서 열린 제10회 세계남자청소년 핸드볼선수권

대회 6일째 프레지던츠컵 2조 경기에서 일본을 34-27로 물리쳤다.

1승 2패의 한국은 조 3위로 25~28위전에 진출, 10일 미국을 상대하게 됐다.

32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를 통해 각 조 상위 2개국이 16강에 오르고, 16강에 나가지 못한 팀은 프레지던츠컵이라는 별도의 순위

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를 당해 프레지던츠컵으로 밀려났고, 전날 프레지던츠컵 첫 경기에서도 아이슬란드에 23-38로 대패했다.

한국은 이날 최지환(원광대)이 8골을 넣고, 김현민과 이민준(이상 경희대)도 6골씩 터뜨려 일본을 잡았다.

우리나라는 일본, 바레인과 1승 2패 동률이 됐지만 골 득실에서 일본에 밀려 조 3위가 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2관 비공식작전
- 3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4관 밀수
- 5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 6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9관 엘리멘탈, 인시디어스: 발간 문
- 7관 싸이커들, 밀수, 바다 탐험대 옥토퍼스 어보브 앤 비하인드: 육지 넘어 하늘까지!
- 8관 싸이커들, 더 문,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여름날 우리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